

광산구, 주민편의 '뒷전' 성과만 '급급'

예산절감·효율성 제고 이유로 '언제나 민원실' 폐지

'성과창출 프로젝트' 추진... 인센티브 등 특혜시비 우려

광주 광산구가 내년부터 구정을 성과중심으로 운영키로 하고 '성과창출 특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하지만 '언제나 민원실' 폐지 등 평소에 주민에게 다가가는 생활행정을 강조해온 구의 방침과 배치되는데다 특별승진 등 인센티브 부여가 자칫 특혜시비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광산구에 따르면 내년부터 '성과창출 특전 프로젝트'를 추진, 특별승진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구정을 성과중심으로 운영키로 했다. 또 불요불급한 기구를 폐지해 예산을 절감하고 인력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로

했다.

성과창출분야로 ▲일자리창출 ▲기업유치 ▲예산확보 ▲예산절감 ▲시책개발 ▲고질 민원해소 ▲구정제안 등을 지정하고, 공무원들로 구성하게 될 '성과창출 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특별승진▲근무평가 가점▲포상금 지급 ▲해외연수 ▲포상휴가 ▲포장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인사혜택은 연 1회씩 5명선에서, 포상휴가는 연 2회씩 시행하는 방침이다.

구는 성과창출 특전 프로젝트로 신

기게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산하

공직자들의 창의적 사고와 전문성 제

고, 잠재능력 개발의 계기가 부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구는 지난 2007년부터 산정동에 개설해 운영해온 '언제나 민원실'을 연말께 폐지할 방침이다.

'언제나 민원실'은 직원 4명이 배치돼 매일 오전 10시부터 밤 12시까지 운영되며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해준다. 최근 들어 1일 민원인이 60여 명에 불과하고 연간 예산은 2억여원이 소요돼 예산절감과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폐지한다는 것이다.

구는 이번 폐지를 보완하기 위해 민원서류 자동발급기 설치나 인근 동사무소에 1명의 전문인력을 배치한다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성과창출 특전 프로젝트' 추진은 차차 특혜시비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구는 성과창출 특전 프로젝트로 신

기게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산하

공직자들의 창의적 사고와 전문성 제

이 공무원들로 국한(잠정)돼 심사의 객관성 보장에 의구심을 낳고 있다. 이해관계에 얹혀 유형무형의 입김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또 성과창출 지정 분야가 하위직보다는 중견부 이상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 특진의 기준이 명확치 못해 인사권자의 입맛대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기우도 있다.

게다가 성과창출로 특별승진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받았으나 극히 한시적인 효과에 그쳤을 경우 차후 대책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구는 '언제나 민원실' 폐지는 예산투입에 비해 이용하는 민원인이 적다는 이유로 폐지를 검토하고 있으나, 평소에 주민에게 다가가는 생활행정을 강조해온 구의 방침과는 배치된 결정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중부취재본부=기원태기자 wtkeee@



"파이팅" "엄마 자신 있어요"

화순지역 유치원생과 학부모들이 최근 화순을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세발자전거 대회에서 열띤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3000여명이 참가했다.

<화순군 제공>

목포해경 오염방제과 전직원

해기사 면허 취득 '화제'



목포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 직원 전원이 선박조정과 운용에 필요한 해기사 면허를 취득해 화제다.

해기사 면허는 국가에서 발행하는 자격증으로, 해상에서의 안전한 선박 운항을 위해 필요한 운전면허와 같은 것이다.

해양 오염방제요원 가운데 선박승선 경험과 자격이 있는 직원 2명 외에 8명이 최근 해기사 면허를 취득해 모든 직원이 소형 방제정을 조종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2월 도입된 12t급 소형 방제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직원들은 해기사 면허를 취득해 모든 직원이 소형 방제정을 조종할 수 있게 됐다.

목포해경 최재평 서장은 "전직원 해기사 면허취득으로 목포앞바다를 비롯해 신안, 진도군 등 담당구역내 크고 작은 오염사고에 신속한 초동대응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해남, 이번엔 '골드 키위'다

농기원, 토종품종 재배 성공... 주생산지로 부상

해남지역이 과육이 노란색을 띠는 '골드 키위' 주생산지로 떠오를 전망이다.

10일 해남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일부 농가에서 순수 국

산품종인 '골드 키위' 생산에 성공함에 따라 올해 재배면적 확대 등 주생산지로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골드 키위'는 기존 '그린 키위'보다 깊이 비싸고 수확량이 많아 높은 소득이 기대되는 품종이다.

'골드 키위' 가격은 kg당 4000원으로 '그린 키위'(2000원) 보다 배정도 비싸고 1000m당 수확량도 3t으로 1t가량 많다.

과육이 노란색을 띠는 '골드 키위'는 타월한 영양과 부드러운 느

낌으로 소비가 매년 늘어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해남에서 생산한 '골드 키위'는 전남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순수 국산품종으로, 외국산이 대부분

인 골드 키위 시장에서 로열티를 낼 필요가 없는 등 농가 소득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현재 50㏊의 그린 키위 재배지 절반 가량을 골드 키위 수종으로GEN하는 등 재배 면적을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는 산이면 등 5㏊에서 50㏊로 생산할 예정이다.

해남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기후여건이 뛰어난 재배 적지로 평가되는 해남은 국산품종의 '골드 키위' 주산지로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목포 중3생 타시도 유출 줄었다

우수학생 시내 고교진학시 학자금 등 지원 성과

목포시가 타 지역유출 방지와 침체된 목포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우수 중3 학생 시내 고교진학 유치 지원 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최근 3년 연속

목포지역 출신 학생 20명 이상이 서

울대에 합격했다"면서 "앞으로 더욱

다양하고 효과적인 교육지원 시책을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부취재본부=임영준기자 lyk@

고 있다. '우수 중3학생 시내 고교진학 유치 지원 사업' 지원대상자는 목포시내 중학교 졸업성적 4% 이내 학생으로 대상 학생들에게는 고등학교 3년간 학자금을 지원한다. 입학 후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성적은 전체 학교 성적 15% 이내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지원한다. 또 지원대상 학생이 4년제

대학교에 진학할 경우 4년간 장학금(연 2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목포시는 ▲고교학력증진사업 ▲논술아카데미 운영 ▲고교수능평가 인센티브 제공 ▲목포 영어체험마을 운영 ▲초·중·고등학교 원어민 영어교사교사 배치 ▲대학생 멘토링 사업 등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최근 3년 연속 목포지역 출신 학생 20명 이상이 서울대에 합격했다"면서 "앞으로 더욱 다양하고 효과적인 교육지원 시책을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부취재본부=임영준기자 lyk@

대학교에 진학할 경우 4년간 장학금(연 2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목포시는 ▲고교학력증진사업 ▲논술아카데미 운영 ▲고교수능평가 인센티브 제공 ▲목포 영어체험마을 운영 ▲초·중·고등학교 원어민 영어교사교사 배치 ▲대학생 멘토링 사업 등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최근 3년 연속 목포지역 출신 학생 20명 이상이 서울대에 합격했다"면서 "앞으로 더욱 다양하고 효과적인 교육지원 시책을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부취재본부=임영준기자 lyk@

대학교에 진학할 경우 4년간 장학금(연 2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목포시는 ▲고교학력증진사업 ▲논술아카데미 운영 ▲고교수능평가 인센티브 제공 ▲목포 영어체험마을 운영 ▲초·중·고등학교 원어민 영어교사교사 배치 ▲대학생 멘토링 사업 등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최근 3년 연속 목포지역 출신 학생 20명 이상이 서울대에 합격했다"면서 "앞으로 더욱 다양하고 효과적인 교육지원 시책을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부취재본부=임영준기자 lyk@

대학교에 진학할 경우 4년간 장학금(연 2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목포시는 ▲고교학력증진사업 ▲논술아카데미 운영 ▲고교수능평가 인센티브 제공 ▲목포 영어체험마을 운영 ▲초·중·고등학교 원어민 영어교사교사 배치 ▲대학생 멘토링 사업 등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최근 3년 연속 목포지역 출신 학생 20명 이상이 서울대에 합격했다"면서 "앞으로 더욱 다양하고 효과적인 교육지원 시책을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부취재본부=임영준기자 lyk@

대학교에 진학할 경우 4년간 장학금(연 2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목포시는 ▲고교학력증진사업 ▲논술아카데미 운영 ▲고교수능평가 인센티브 제공 ▲목포 영어체험마을 운영 ▲초·중·고등학교 원어민 영어교사교사 배치 ▲대학생 멘토링 사업 등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최근 3년 연속 목포지역 출신 학생 20명 이상이 서울대에 합격했다"면서 "앞으로 더욱 다양하고 효과적인 교육지원 시책을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부취재본부=임영준기자 lyk@

대학교에 진학할 경우 4년간 장학금(연 2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목포시는 ▲고교학력증진사업 ▲논술아카데미 운영 ▲고교수능평가 인센티브 제공 ▲목포 영어체험마을 운영 ▲초·중·고등학교 원어민 영어교사교사 배치 ▲대학생 멘토링 사업 등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최근 3년 연속 목포지역 출신 학생 20명 이상이 서울대에 합격했다"면서 "앞으로 더욱 다양하고 효과적인 교육지원 시책을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부취재본부=임영준기자 lyk@

대학교에 진학할 경우 4년간 장학금(연 2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목포시는 ▲고교학력증진사업 ▲논술아카데미 운영 ▲고교수능평가 인센티브 제공 ▲목포 영어체험마을 운영 ▲초·중·고등학교 원어민 영어교사교사 배치 ▲대학생 멘토링 사업 등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최근 3년 연속 목포지역 출신 학생 20명 이상이 서울대에 합격했다"면서 "앞으로 더욱 다양하고 효과적인 교육지원 시책을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부취재본부=임영준기자 lyk@

대학교에 진학할 경우 4년간 장학금(연 2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목포시는 ▲고교학력증진사업 ▲논술아카데미 운영 ▲고교수능평가 인센티브 제공 ▲목포 영어체험마을 운영 ▲초·중·고등학교 원어민 영어교사교사 배치 ▲대학생 멘토링 사업 등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최근 3년 연속 목포지역 출신 학생 20명 이상이 서울대에 합격했다"면서 "앞으로 더욱 다양하고 효과적인 교육지원 시책을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부취재본부=임영준기자 lyk@

대학교에 진학할 경우 4년간 장학금(연 2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목포시는 ▲고교학력증진사업 ▲논술아카데미 운영 ▲고교수능평가 인센티브 제공 ▲목포 영어체험마을 운영 ▲초·중·고등학교 원어민 영어교사교사 배치 ▲대학생 멘토링 사업 등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최근 3년 연속 목포지역 출신 학생 20명 이상이 서울대에 합격했다"면서 "앞으로 더욱 다양하고 효과적인 교육지원 시책을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부취재본부=임영준기자 lyk@

대학교에 진학할 경우 4년간 장학금(연 2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목포시는 ▲고교학력증진사업 ▲논술아카데미 운영 ▲고교수능평가 인센티브 제공 ▲목포 영어체험마을 운영 ▲초·중·고등학교 원어민 영어교사교사 배치 ▲대학생 멘토링 사업 등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최근 3년 연속 목포지역 출신 학생 20명 이상이 서울대에 합격했다"면서 "앞으로 더욱 다양하고 효과적인 교육지원 시책을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부취재본부=임영준기자 lyk@